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투쟁

강 원 철

인민생활을 빠른 시일안에 향상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라온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 주실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마련해주시려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련관된 부문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각급 직맹조직들이 농업부문에 필요한 비료와 영농물자를 생산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각급 직맹조직들은 비료이자 곧 쌀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는것과 함께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보내주기 위한 련관부문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굴지의 비료생산기지인 홍남과 남흥에서 생산적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주체102(2013)년과 주체103(2014)년에 홍남비료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필요한 석탄을 비롯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14개 련관단위들사이의 사회주의중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은 알곡생산에서 비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비료공장들에 더 많은 석탄과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홍남비료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102(2013)년에 이르러 전년도에 비하여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그리고 주체103(2014)년에는 주체102(2013)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수십만t이나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시비년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알곡생산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와 농기계부속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주체102(2013)년 직맹조직들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토반출과 소농기구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지원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분토와 소농기구, 영농물자를 지역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알곡생산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직총중앙위원회는 각 도직맹위원회들에서 도안의 프락또르부속품공장과련결농기계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체103(2014)년 4월에는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한 4개의 련결농기계공장들사이의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였으며 여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을 내세워주고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주체102(2013)년에 전국적으로 프락또르 및 농기계부속품 수집종에 수만점을 생산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만여점이나 더 많은 농기계부속품을 농업부문에 보내주었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이와 함께 1만정보의 새땅을 찾아 내는 간석지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생산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조건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찾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주체101(2012)년에 룡매도간석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경쟁의 분위기를 세우기 위하여 직총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을 비롯하여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도록 함으로써 간석지건설에 떨쳐나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이밖에도 팍산간석지 6호, 7호제방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조직과 지도방조사업을 짜고들어 간석지건설을 적극 다그치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주체103(2014)년에 황해남도, 평안북도직맹위원회들에서 룡매도, 홍건도간석지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였다.

룡매도간석지건설에 동원된 양화간석지건설사업소를 비롯한 7개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기본제방쌓기와 장식쌓기를 진행하였으며 홍건도간석지건설에 동원된 팍산간석지건설사업소를 비롯한 10여개의 시공단위들에서도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단기 사회주의경쟁을 5차에 걸쳐 조직하여 많은 량의 토량을 운반하고 수백m의 제방쌓기를 진행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다음으로 각급 직맹조직들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본새를 따라 배워 수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매일 정상적으로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산사업소들을 찾고 또 찾으시여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직총중앙위원회는 나라의 수산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수산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회주의경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수산사업소들사이의 사회주의증산 경쟁을 동해와 서해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수산성, 국가계획위원회의 해당 일군들을 망라한 경쟁지휘부가 조직되었고 주체103(2014)년 3월에는 문덕수산사업소와 신평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경쟁참가단위 일군들의 참가밑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바다를 끼고있는 도, 시, 군초급직맹조직들에서 수산물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수산협동조합들사이의 사회주의증산경쟁조직과 총화,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주체103(2014)년 3월 20일까지 7개 도직맹위원회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함으로써 5월말까지 서해어장에서 주체102(2013)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3배이상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은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수산사업소들에서 주체103(2014)년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주체103(2014)년 6월 먼바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원양선단들사이의 사회주의증산경쟁선포모임을 조직하고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평가사업에 리용할 우승기를 비롯하여 경쟁물자들을 넘겨줌으로써 수산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더 많은 물고기잡이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직총중앙위원회는 다음으로 각급 직맹조직들이 경공업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주체101(2012)년에 들어서면서 집단적경쟁열의가 높아지는 분위기에 맞게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명상품, 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쟁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경쟁참가자들의 열의를 높여주고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에 대한 경쟁평가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경쟁참가단위들에서 새 기술, 새 제품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주체101(2012)년에 경공업공장들과 원료, 자재보장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단위들에서 새로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자체로 원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각 도, 시, 군직맹위원회들에서는 담당한 식료공장, 기초식품공장들에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현대화경쟁, 원료기지조성경쟁, 분토반출경쟁을 실정에 맞게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을 새롭게 일신시켜 본보기로 꾸리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50돐전으로 창성군을 지방공업의 전국적인 본보기단위로 꾸리도록 하기 위한 경쟁운동을 힘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평안북도직맹위원회에서 창성군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는 창성군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3단계로 조직하고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여 맡겨진 대상건설을 제 기일내에 완전히 끝내도록 하였다.

이처럼 각급 직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생산을 늘여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며 더 많은 수산물과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적극 벌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